

노동계 “적정임금·노동이사제 도입” 현대차 “사업성·지속가능성 고민”

기रो에 선 ‘광주형일자리’…논의 쟁점과 전망

민선 6기의 핵심 프로젝트이자 민선 7기에도 최대 현안이 된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 마지막 단계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선 6기 막판 현대자동차의 투자향서 제출 이후 노동계의 불만과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6기 4년간 공들여 지난 3월 7일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채택한 공동결의문 역시 그 효력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제 관심은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와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에 발을 들인 것인 지, 현대차가 지역 노동계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일 지에 쏠려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지켜지지 못하면 ‘광주형 일자리’는 무산되고, 최악의 경우 현대차의 투자 의향 철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노동계는 불신, 현대차는 당혹, 광주시는 노심초사=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이 협상에서 다뤄지고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적정임금은 광주형 일자리 용역에서 밝힌 초임 연봉 4000만원선에 맞추고, 여기에 적정 노동시간(주 52시간)과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사공동책임경영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에 대해 투자자의 한 축인 현대차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임금 저효율 생산 구조, 강성 노조 등으로 인해 해외 공장 신설에 나선 현대차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서두르기보다는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광주공장과 합작법인이 수익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임금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노동이사제 등은 장기적인 사안으로 다루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테이블에 노동계가 참여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노동계와 현대차 사이에서 지난 6월 1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현대차의

광주시 주거·교육 등 지원

지역노동계도 등 돌려 ‘난항’

현대차 투자 협상 논의 중단

노사공감 최적 방안 찾아야

의중을 살펴가며, 노동계에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었다.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데다 제2, 제3의 투자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투자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현대차 노조에 이어 지역노동계까지 등을 돌리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되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단 노동계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현대차를 설득하는 쪽으로 노선을 틀었다.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국내외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프로젝트로, 아직 구현되지 못한 각 당사자의 이해를 조율·조정해야하는 광주시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적정임금, 노사경영공동책임 등에 공감대 조성이 관건=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해 광주시와 현대차가 자기자본금 중 590억원(21%)과 530억원(19%)을 각각 투자하는 자동차 생산공장은 1000cc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생산하기로 돼 있다. 빗그린국가산단 내 62만8000㎡(19만평)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7000억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이 공장이 수익을 내고 계속 존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임금, 적정대수 이상 판매가 능한 경쟁력 있는 차종 생산, 수익구조 공개와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노사 상생



광주 빗그린국가산업단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온 현대자동차 실무진들이 개발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게 산단 개발 현황과 완성차 공장 부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등의 요소를 갖춰야 한다.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는 광주시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 소득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노와 사가 각각의 이해만 주장하는 현재의 논의가 ‘생산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현대차·광주시와의 협상 내용, 노조의 주장 등을 공개해 지역민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 의장은 “대기업 절반 수준의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역 청년들이 취업한다”며 “초임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지만, 최근 하남산단에서 초임 연봉 3000만원 일자리에도 지역 청년들의 참여율은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최소 초임 3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시는 초임 연봉 4000만원보다 낮은 수준에 대신 주거·의료·교육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장을 만난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협상은 모두 상대방이 있는 것이며, 현대차는 투자 협상에 노동계가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광주형 일자리 공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최적의 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6.7% 올라

최저임금보다 19% 많아

전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9370원보다 6.7% 오른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8350원)보다 19.8% 많다. 광주시(1만9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경기도와 도내 기초단체들도 잇따라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달리 해당 지자체와 산하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남도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올해 400명에서 내년에는 540명으로 늘어난다. 전남도, 도의회, 출자·출연 기관, 전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 근로자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에 주휴 시간 8시간이 포함된 48시간을 일하면 월 209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대비 13만1670원이 인상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민간공원 2단계 사업 7개 지구 15개 업체 접수 시민심사단 평가 거쳐 10월말 사업자 선정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6개 공원 7개 지구에 대한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 총 15개 업체가 제출했다. 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시민심사단을 평가에 참여시켜 10월 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최종 평가한 후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광주시공사는 물론 수도권 및 지역 건설업체, 투자사 등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대규모 주택단지 부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2

개 업체 ▲중앙공원 2지구 3개 업체 ▲중앙공원 2개 업체 ▲일곡공원 3개 업체 ▲운암산공원 4개 업체 ▲신용(운암)공원 1개 업체 등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송정공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다.

시는 민간공원 대상지인 10개 공원 중 1단계 4개 공원을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6개 공원 711만8839㎡는 7개 지구로 나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위해 지난 5월 제안서 접수 안내 공고를 한데 이어 6월 183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2단계는 1단계를 보완해 공원 전체부지 매입 후 일부 면적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원형보존함으로써 30% 범위 내 비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9.3%로 대폭 축소했다. 또 제안 위치와 구역 등을 지정한 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제한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녹지와 공원 면적은 최대한 지킬 수 있게 했다.

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시민심사단을 평가에 참여시켜 10월 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최종 평가해 공원별로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다만,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은 송정공원은 공원일몰제(2020년 7월) 시한성을 감

안해 우선 미제출 사유를 분석해 제한 사항을 일부 조정한 뒤 재공고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재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재정집행 등을 별도로 검토하게 된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로 ▲마북 ▲송암 ▲수랑 ▲봉산 등 4개 공원은 올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협상 추진중이다.. 교육청 등 협의가 완료되면 제안 사업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1단계 4개 공원의 지금까지 주요협상 추

진 내용은 ▲공동주택 6371세대를 5313세대로 1058세대(16.6%) 축소 ▲비공원면적을 33만30㎡(25%)에서 29만8119㎡(22.5%)로 3만1911㎡(2.5%) 줄이는 등 비공원시설 최소화, 건물 높이 제한, 시민 및 장애인 접근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정중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비공원 시설 축소를 통해 경관 및 공원 훼손 최소화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스마일라식은 역시 신세계안과

- 2013년 호남최초 3D스마일라식 도입
- 3D스마일라식 17,000례 달성 (2018년 8월 기준)
-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닥터' 선정(전국 5인)
- 전국 4대 스마일센터
- 호남유일 3D스마일장비 2대 보유
- 소비자만족지수 안과부분 3년 연속 1위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시력교정 대상 수상

1566-9988

옛, 밝은광주안과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해남 오시아노 대중골프장(9홀)] 위탁(임대)운영 제안공모

- 01 사업개요
 - 위탁대상 | 대중골프장(9홀) 및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
 - 위치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산 40-1번지 일원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 면적 : 538,288㎡
 - 시설 : Par3 연습장 (골프스쿨 및 골프연습장 건물은 제외)
 - 위탁범위 | 위탁대상의 운영 및 관리 등 포괄적 위탁
 - 위탁기간 | 2019.1.1 ~ 2021.12.31
- 0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03 제안요청서 교부 및 설명회
 - 조달청 G2B 및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kto.visitkorea.or.kr) 내 공고 / 공모 참조
 - 현장 설명회 일시 : 2018. 9. 20. (목) 14:00
 - 장소 :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현장사무실 (전남 해남군 화원면 소재)
- 04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 1항 1호에 의한 외국인의 경우 동종 또는 유사사업을 운영한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0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마감일시 | 2018. 10. 2. (화) 16:00까지
 - 제출장소 |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 광주회관 7층)
 - 제출방법 | 대표자(또는 대리인) 방문제출 (택배, 우편접수 불가)
 -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 062) 371-1580
- 06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합니다.
 -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81호, 2018.6.7.)에 의합니다.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